

“전남에 의대 설립 의료격차 해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에 촉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국회서 대토론회...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의대 유치 총력전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위한 의정 협의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가 국립 의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첫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전남도가 신속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승남·서삼석·김원아·서동용·소병철·주철현 국회의원,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필규 전남시군의회장협의회장, 도·시군의원, 수도권 향우회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남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와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전남지역 국립 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김승남 국회의원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토론회에선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다. 건의문은 김영록 지사, 서동욱 의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22개 시군을 대표해 박우량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과 강필규 시군의회장협의회장이 함께 서명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구호가 담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부 토론회에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

석전문위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부국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정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정미 전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의료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발제를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 확충 관련 그동안의 논의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 및 연대 등을 제안했다.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대 필요성과 전남 지역 의대 설립 전망,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집중 토론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 건강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지역 공공의료 사명감 역할 및 취약지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전남에 반드시 국립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숨은 테마길로 골목경제에 활력 ‘주민이 정책 발굴’ 주민자치 정착”

김이강 서구청장 신년 인터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집단 지성의 힘은 결국 주민들의 참여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서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3일 만난 김이강 서구청장은 2023년 새해에도 ‘풀뿌리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지난 7개월여간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구정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구정장 직통 민원 플랫폼인 '바로 문자하랑'을 신설해 개통 5개월만에 1000여통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플랫폼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들 또한 업무에 여유가 생겨 환층 강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서구 내 18개 동(洞)의 행정력을 강화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청장은 18개 동 가운데 풍암동, 금호1동, 치평동, 동천동 등 4개 동을 거점동으로 지정하고 인근 2-3개 동을 연계동으로 묶어 수평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었다.

“주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없는 구정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갭(gap)이 있게 마련이고, 타당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주민 정책 의견이 동으로 모이고, 이를 구정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수평적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올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은 서구 곳곳에 숨은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들어와 골목 곳곳에 숨은 가게까지 찾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 ‘소통 테마길’을 조성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유인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또 올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활력 지원 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지난해 10월 선정된 ‘스마트 통합 돌봄’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서구는 스마트 기기와 돌봄사업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 청장은 스마트케어 관련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 향후 수백억, 수천억 원 수준의 복지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 청장은 이밖에도 올해 ‘탄소중립팀’ 부서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서구 곳곳에 평생교육센터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을 설치하겠다는 올해 목표를 밝혔다.

또 다음달까지 붕괴사고가 있었던 광주 화정아파트 관련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철거·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사고를 전면 방지하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취임 때 약속했듯, 변화하는 서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에 29만명 서구민들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음을 갖고, 서구는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4년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일자리종합계획 수립...4년간 4조7918억 투입 고용률 66% 목표

광주시가 민선 8기 4년 동안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도전한다.

광주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 일(My Job)’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선 8기 광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미래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생일자리 확산 ▲고용인프라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실행과제, 16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4년간 예산 4조 7918억원을 투입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 고용률(15-64세)을 현 64%에서 6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미래일자리 창출’ 분야는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플랫폼도시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 중심 ‘일할 수 있는 기회도시 광주’의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해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차세대배터리·자율주행차·정밀의료·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

운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페스티벌, 광주창업포럼 등을 기반으로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5000억 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2026년까지 광주역 창업밸리를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혁신 단지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담은 ‘영산강Y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광기업 육성 및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해 오는 4월부터 기존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中企 경영안정자금 을 2500억원

16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접수

광주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2500억 원 규모로, 상반기 설 이전까지 1800억원을, 하반기에는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및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 지원한다.

상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